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분입니다
배포일자		2023년 3월 12일(일) 총 3매		
담당 부서	행정체제혁신과	담 당 자	• 개편기획팀장 • 담당자	김예은 ☎ 440-3301 박은혜 ☎ 440-3304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위해 지역 의견수렴 나선다

- 시민소통협의체를 시작, 본격적으로 권역별·대상별 주민설명회 개최 -
-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실현 할 것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중구·동구 통합·조정과 서구 분할을 골자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맞춤형 지역 의견수렴’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 초래되는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 수요 대응을 위해 지역 맞춤형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해 미래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올해 1월 시민·전문가·지방의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대표 소통기구인 시민소통협의체가 출범한데 이어, 중·동·서구 권역별, 대상별로 주요 사회단체와 주민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방의회 및 지역구 국회의원 설명회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민소통협의체는 지역별 맞춤형 소통을 위해 행정부시장 주재로 13일 △ ‘중·동구 조정·통합’ 분과 회의를 개최하며 중·동구의원을 초청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14일 △ ‘서구 분할’ 분과회의를 개최해 행정체제개편안에 관한 지역 현안 사항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27일에는 지방의회의원, 전문가들을 포함한 전체 회의를 개최해 행정체제 개편 관련 전문성과 균형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의 구심점으로 역할을 수행해 갈 예정이다.

또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들을 수 있도록 주요 사회단체장 및 주민 설명회도 개최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사회단체장 설명회는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중·동·서구별*로 진행되며, 주민설명회는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6개 권역별**로 진행 될 예정이다

* 중구(3.24), 동구(3.23), 서구(3.22)

** 중구(4.3~4.4. / 2회), 동구(3.29 / 1회), 서구(3.29~3.31 / 3회)

또한 무엇보다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지역 정치권과도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유용수 시 행정국장은 “현재의 인천시 행정체제가 개편되면 자치단체 역량 강화로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 한다며, “행정체제 개편은 시민분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무엇보다 시민분들의 의견이 중요한 만큼 시민분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동력으로 삼겠다” 고 말했다.



▲올해 1월 열린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 출범식